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4월 27일 2교시	출제자	최은진, 김은경, 김성희		
		반	번호:	이름: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선택형은 OMR카드에, 서술형은 서술형 답안지에 작성하세요.

[1, 서술형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손을 내밀면 연하고 보드라운 혀로 손등이며 불을 쓰옥, 쑥 훑아 주며 간지럼을 태우던 흰둥이. 보신탕감으로 내다 팔아야겠다고, 어머니가 앓아누우신 아버지의 약봉지를 세던 밤. 나는 아무도 몰래 대문을 열고 나가 흰둥이 목에 걸린 쇠줄을 풀어 주고 말았다. 어서 도망가라, 멀리멀리, 자꾸 뒤돌아보는 녀석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밤새 가슴이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멀리 달아났으리라 믿었던 흰둥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서 그날따라 꾸밈하게 나온 밥그릇을 바닥까지 다디달게 핥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어린 나는 그에 꼭 참고 있던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는데

흰둥이는 그런 나를 다만 젖은 눈빛으로 훑아 주는 것이었다. 개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쓰옥, 쑥 혀보다 더 축축이 젖은 눈빛으로 훑아 주고만 있는 것이었다.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3점)

- ① 자신의 경험을 논리적, 객관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소중한 대상과 이별하는 슬픔을 잘 표현하고 있다.
- ③ 이 글은 행을 나누지 않는 산문형식의 글이므로 운율을 느낄 수 없다.
- ④ 팔려가는 흰둥이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어머니의 시선을 통해 잘 그려져 있다.
- ⑤ 흰둥이를 개장수에게 팔고 싶지 않은 마음과 자신의 약값 때문에 갈등하는 아버지의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다.

<서술형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6점)

(1) 위 시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

(2점)

(2) 위 시에서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은 무엇인가?

~ 때문에 ~ 해야(야) 하는 상황이다. (2점)

(3) 시적대상에 대한 말하는 이의 정서는 어떠한가?

(2점)

<조건> (1)은 단어로, (2)는 주어진 문장 형태로 쓰시오.

<배점>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각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각 1점 감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울 남산 아래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더듬거렸으며, 게으르고 생각이 좁았다. 세상 돌아가는 일도 알지 못하고 장기나 바둑 같은 것도 할 줄 몰랐다. 사람들이 욕을 해도 따지지 않고 칭찬을 해도 뽐내지 않았다. ㉠오직 즐기는 것은 책을 보는 일 이어서 추위나 더위, 배고픔이나 아픔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스물한 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었다. 그의 방은 매우 좁았지만, 동쪽, 남쪽, 서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일 때 그 밝은 빛을 따라 책을 읽었다. ㉢읽지 못한 책을 만나면 즐거워하며 웃었다. 그래서 집안사람들은 그가 웃는 것을 보면, ‘좋은 책을 만났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는 두보의 시를 무척 좋아해서 앓는 소리처럼 웅얼웅얼 읊었다. 그러다가 ㉣깊은 뜻을 깨우치면 매우 기뻐하며 일어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기뻐하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갈까마귀가 우는 듯했다. 어떤 때는 아무 소리도 없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자세히 살피기도 하고, 꿈꾸는 사람처럼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간서치(看書癡, 책만 읽는 바보)’ 라고 불렀는데 그도 그 이름을 좋아했다. ㉤그의 이야기를 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붓을 들어 적고 제목을 ‘간서치전’ 이라고 붙였다. 그가 누구인지 이름은 적지 않는다.

2. 위 글 ㉠~㉤중 읽기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3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 뒷면에 계속

[3~6, 서술형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나) 뒤뜰 어둠 속에

나뭇짐을 부려 놓고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무 한 쪽을 예쁘게 깎아 내셨다.

말할 힘조차 없는지

무쪽을 받아 든 채

아궁이 앞에 털썩 주저앉으시는데

환히 드러난 아버지 이마에

흘러난 진땀 마르지 않고 있었다.

어두워진 산길에서

후들거리는 발끝걸음으로

어둠길 가늠하셨겠지.

불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다시 이어지는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

㉡그 모든 소리들 한데 어울려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다.

3. (가)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4점)

- ① ‘~이 있다’ 라는 부드러운 어조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 ② 7~9행에서 은유법을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희망’ 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라는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 ④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봄날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 ⑤ ‘길이 있다’ 와 대조되는 시구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 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4. ㉠에 사용된 표현과 같은 기법이 사용된 것은?(4점)

- 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②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 ③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주오
- ④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서술형2>

(가)시는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바른 삶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나타내는 시구를 찾아 쓰고, 말하는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쓰시오.(6점)

(1)시구: _____ (3점)

(2)바람직한 삶의 모습: _____ (3점)

<조건> 가. (1)은 행 단위로 쓰시오.

나. (2)는 ‘ ~ 상황에서도 남을 위해 ~ 모습이다.’ 의 형태로 쓰시오.

<배점>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각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각 1점 감점

5. (나)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3점)

- ① 차분한 어조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과거에 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 ③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가족들의 모습과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 ④ 아버지를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행동묘사와 소리를 통해 잘 전달되고 있다.
- ⑤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어느 가정의 화목하고 단란한 모습을 작품 밖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보며 말하고 있다.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4월 27일 2교시	출제자	최은진, 김은경, 김성희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6. ㉠과 같은 심상으로 표현된 것은?(4점) ① 강한 향기로 흐르는 코피 — 서정주, <대낮>에서 ②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 서정주, <문둥이>에서 ③ 동기동 줄이 울면 초가삼간 달이 뜨고 — 이완영, <조국>에서 ④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 김종길, <성탄제>에서 ⑤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 김광균, <외인촌>에서 <서술형3> (나)시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를 다음의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7점) -----<조건>----- 시의 주제, 시적 대상들의 행동과 관련하여 서술할 것 -----<조건>----- <조건> ‘ ~ 모습과 ~ 모습에서 ~가(이) 느껴지기 때문이다.’의 형식에 따라 서술하시오. <배점>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1점 감점 <서술형4> <보기>에서 말하는 이는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묻고 있다. 그런 그들과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진 시어를 찾아 쓰고, 그것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지 쓰시오.(7점) -----<보기>-----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보기>----- (1) 시어: _____ (3점) (2) 의미: _____ ~ 존재이다.(4점) <조건> (1)은 단어로 (2)는 주어진 문장형태로 쓰시오. <배점>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각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각 1점 감점 7. 다음 중 어법상 바른 문장은?(4점) ①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② 협상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③ 경현아, 선생님께서 너 오시래. ④ 해결의 실마리가 차츰 보여진다. ⑤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의 자세를 바로 잡는다.		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개 고르면?(4점) -----<보기>----- ㉠ 엄마는 흰 죽을 쑌어서 나에게 <u>먹이셨다</u> . ㉡ 엄마는 아침에 상한 빵을 <u>먹게 했다</u> 고 무척 미안해 하셨다. -----<보기>----- ① ㉠은 능동, ㉡은 피동 표현이다. ② ㉠은 사동, ㉡은 주동 표현이다. ③ ㉠은 엄마가 직접 나에게 죽을 떠 넣어 먹였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죽을 먹도록 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④ ㉡은 내가 스스로 빵을 먹도록 했음을 의미한다. ⑤ ㉡은 엄마가 나에게 직접 빵을 먹였음을 의미한다. 9. <보기>의 ㉠, ㉡, ㉢의 시제를 순서대로 바르게 제시한 것은?(2점) -----<보기>----- 내 연필 ㉠ <u>쓴</u> 사람이 누구니? 재원이는 앞으로 큰 인재가 ㉡ <u>되겠다</u> . 아름다운 소리를 ㉢ <u>내</u> 는 피아노가 좋다. -----<보기>----- ① 과거, 미래, 현재 ② 현재, 과거, 미래 ③ 현재, 미래, 과거 ④ 현재, 미래, 현재 ⑤ 과거, 현재, 미래 <서술형5> <보기>의 문장을 능동 표현은 피동 표현으로, 사동 표현은 주동 표현으로 바꾸어 쓰시오.(6점) -----<보기>----- ㉠ 송준기가 송혜교의 마음을 흔들었다. ㉡ 송준기가 송혜교를 웃게 한다. -----<보기>----- <조건>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시오. <배점> 가.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각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각 1점 감점 (1) ㉠ _____ (3점) (2) ㉡ _____ (3점)			

☞ 뒷면에 계속

☞ 뒷면에 계속

<서술형6>

<보기>의 높임 표현이 잘못 사용된 곳을 바르게 고치시오.(5점)

-----<보기>-----
준현이는 할머니가 동생 잘 계시냐고 묻는 것에
대답을 회피했다

<조건> 가. 높임 표현이 잘못된 곳은 모두 고칠 것
나. 고칠 필요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쓸 것
<배점> 가.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1점 감점

<서술형7>

<보기>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7점)

-----<보기>-----
오늘 오후에 승윤이와 야구 경기를 보러 갔다. 며칠
전만 해도 표를 ㉠(안, 못) 구했는데 다행히 승윤이 아
버지께서 지난주에 표를 사 놓으셔서 경기를 볼 수 있
었다.

비록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지 ㉡(않아서, 못해서) 실
망스러웠지만, 모처럼 목청껏 소리를 질렀더니 시험 때문
에 우울했던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의 표정이 ㉢(좋았다, 좋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책꽂이에 감춰 두었던 내 성적표를
보신 것이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머리는 나쁘지 않은데
공부를 열심히 ㉣(안, 못)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신다. 하지만 나는 공부보다 야구가 더 좋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십 년 후에 야구 경
기장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1) ㉠~㉣ 괄호 안의 표현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
쓰시오.(4점)

(2) ‘안’ 과 ‘못’ 의 의미 차이를 쓰시오.(3점)

<조건> (2)는 “ ‘안’ 에 의한 부정은 ~나 ‘못’ 에
의한 부정은 ~다. ” 의 문장 형태로 쓸 것

<배점> 가.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각 1점 감점

[10~11, 서술형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처럼 나를 방문한 친구 하인리히 모어가 저
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서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
누고 있었다. 해는 저물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가
파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호수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

게 보였다. 마침, 내 어린 아들이 밤 인사를 하고 나
가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린 시절의 기억
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중략)

그리고 나서 그가 열려 있는 창문 곁으로 가 앉자 조금 아
위고 길쭉한 그의 얼굴은 거의 어둠 속에 묻혀 버렸다. 내
가 담배를 피우는 동안 밖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밤을 수놓았고, 내 친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
를 들려주었다.

(나) 내가 나비를 잡기 시작한 건 여덟 살인가, 아홉 살 때
쯤이었을 거야. 처음엔 별로 열심이랄 것도 없이, 다른 애들
이 다 하니까 나도 해 보는 정도였지. 그런데 열 살쯤 된
두 번째 여름에는 나는 완전히 이 유희(遊戱)에 취미가 생
겨서, 이 때문에 다른 일은 전혀 돌보지 않게 되었다네. 주
위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못 하도록 말리지 않으면 안 되겠
다고 걱정을 할 정도였어.(중략)

그리하여 아리따운 나비를 발견하면 — 특별히 진귀한 것
이 아니라도 좋았지. 햇볕 아래 졸고 있는, 꽃 위에 앉아서
빛깔이 고운 날개를 호홉과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
— 그것을 잡는 기쁨에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 가만가만 다
가서곤 했어. 반짝이는 반점 하나하나, 날개 속에 드러난 맥
줄 하나하나, 가는 더듬이의 갈색 잔털 하나하나가 눈에 뚜
렷이 보이면, 그 긴장과 환희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
네. 그때의 그 미묘한 기쁨과 거센 욕망의 교차는 그 뒤엔
자주 느낄 수 없었지.

(다) 이것을 본 나는, 이 보배를 손에 넣고 싶은 건딜 수
없는 욕망에 그만 난생처음으로 도둑질을 했다네. 나방은
벌써 말라 있어서, 손을 대는 정도로는 형체가 일그러지지
않았어. 나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받쳐 들고 에밀의 방을
나왔다네. 그때 나는, 어떤 커다란 만족감 이외에 아무 생각
도 없었지.

(라)그지없이 슬픈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나는 하루 종일
좁은 뜰 안에 주저앉아 있었지. 그러다가 마침내 나는 용기
를 내어,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네. 어머니는 놀
라움과 슬픔에 잠겨 어찌할 줄을 모르셨지만, 나의 이 고백
이 얼마나 어려운 고민 끝에 나왔는지를 충분히 짐작하시는
것 같았어.

“지금 곧 에밀에게 가거라. ”

어머니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네.

“에밀을 찾아가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밖
에는 다른 길이 없다. 네가 가진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대
신 가지라고 말해 보렴.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지.”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4월 27일 2교시	출제자	최은진, 김은경, 김성희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p>(마) 나는 그제야 그것이 나의 소행인 것을 밝혔다네. 그랬더니 에밀은 격분하지도, 큰소리로 꾸짖지도 않고, 혀를 차며 한동안 나를 지켜보다가 나직한 소리로, “알았어. 말하자면 너는 그런 자식이란 말이지?” 라고 하더군. 나는 그에게 내 장난감을 모두 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냉담하게 앉아, 여전히 나를 비웃는 눈으로 지켜보고만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내가 수집한 나비를 전부 주겠다고 했지.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좋아. 나는 네가 모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 게다가 오늘은 너의 나비 다루는 성의가 어떻다는 것을 알 만큼은 알았어.” 그 순간, 나는 녀석의 먹살을 움켜쥐고 늘어지고 싶었어. 이제는 아무런 도리가 없음을 알았다네.</p> <p>(바)그때 나는 비로소, 한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 해도 바로 잡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네.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키스만을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고마웠지. 어머니는 나더러 그만 잠자리에 들라고 하셨어. 여느 날보다는 시간이 늦은 편이기는 했지. 그러나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만히 식당으로 가서 갈색의 두 겹고 커다란 종이 상자를 찾아 가지고 와서 침대 위에 올려놓고, 어둠 속에서 뚜껑을 열었어. 그리고 그 속에 든 나비들을 꼬집어내어 손끝으로 비벼서 못쓰게 가루를 만들었다네.</p>		<p>11. 이 소설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개 고르면(2점)</p> <p>① 하인리히 모어는 나비잡기에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 ② 하인리히 모어는 정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③ 에밀은 냉정한 성격으로 하인리히 모어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 ④ 하인리히 모어는 어머니의 충고로 에밀에게 마음에 없는 사과를 한다. ⑤ 하인리히 모어는 처음 공작나방을 갖게 되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p> <p><독서> 12. <꺼삐딴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u>않은</u> 것은? (3점)</p> <p>①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부터 6.25 전쟁 후까지이다. ② 시대와 상황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자를 풍자하고 있다. ③ 작가는 인물의 행동, 대사 및 심리묘사를 생동감 있게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순행적으로 전개하면서 반인간적이고 반민족적인 인물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⑤ 이인국이라는 부정적 인물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킬 줄 아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p> <p>13. <꺼삐딴리>에서 이인국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알맞지 <u>않은</u> 것은?(2점)</p> <p>① 러시아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②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낸다. ③ 브라운씨에게 고려 청자를 선물한다. ④ 소련장교의 혹을 자진해서 수술해 준다. ⑤ 소련병사에게 시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쓴다.</p>			
<p>10.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u>않은</u> 것은?(3점)</p> <p>① 나비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② 액자식 구성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③ ‘나(하인리히 모어)’의 정신적 성숙 과정을 그린 성장소설이다. ④ 내부 이야기는 ‘나(하인리히 모어)’의 회상 형식으로 서술된다. 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뀌면서 서술자도 바뀐다.</p> <p><서술형8> (마)에 나타난 주된 갈등의 유형과 갈등의 내용을 쓰시오.(6점) (1) 갈등의 유형: (3점) (2) 갈등의 내용: (3점)</p> <p><조건> (1)은 어구로 (2)는 문장으로 쓰시오. <배점> 가.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각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각 1점 감점</p>					

뒷면에 계속

☞ 뒷면에 계속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약재만 해도 그렇다. 옛날에는 숙지황을 사면 보통의 것은 얼마, 그보다 나은 것은 얼마의 값으로 구별했고, 구증구포한 것은 세 배 이상 비쌌다. 구증구포란, 찌고 말리기를 아홉 번 한 것이다. 눈으로 보아서는 다섯 번을 찌는 지 열 번을 찌는지 알 수가 없다. 말을 믿고 사는 것이다. 신용이다. 지금은 그런 말조차 없다. 남이 보지도 않는데 아홉 번씩이나 찌 리도 없고, 또한 말만 믿고 세 배나 값을 더 줄 사람도 없다.

(나) 옛날 사람들은 흥정은 흥정이요, 생계는 생계이지만, 물건을 만드는 그 순간만은 오직 훌륭한 물건을 만든다는 그것에만 열중했다. 그리고 스스로 보람을 느꼈다. 그렇게 순수하게 심혈(心血)을 기울여 공예 미술품을 만들어 냈다. 이 방망이도 그런 심정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 노인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 “그따위로 해서 무슨 장사를 해 먹는다.” 하던 말은 “그런 노인이 나 같은 청년에게 멸시와 증오를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물건이 탄생할 수 있담.” 하는 말로 바뀌었다. (다)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책이 꽤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책 속의 주인공들은 내가 읽었던 수많은 무협지의 주인공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다.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지고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 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그 책의 내용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거듭 펴서 읽었을 뿐인데도.

(라)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 활동 시간에 나는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 내게로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처음 해 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척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읽으면 내 피와 살이 되는 고전, 맛있는 고전, 내가 재미를 들인 최초의 고전이 우리의 조상이 쓴 것이라는 데에서 나오는 뿌듯함까지 맛볼 수 있었다.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특별 활동 시간은 없어졌다. 내가 1학기의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생을 바꾸었다.

(마)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의 일원이 되는 것은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 준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 준다. 책은 지구 상에서 인간이라는 종(種)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14.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3점)

- ① (가): 오늘날에는 옛날과 같은 장인정신과 신용이 사라졌다.
- ② (나): 노인의 장인정신을 깨닫고 노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 ③ (다): 고전소설 읽기는 나에게 정신세계가 넓어지는 느낌을 주었다.
- ④ (라): 나는 도서관에서 고전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 ⑤ (마): 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하여 독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개 고르면? (3점)

- ①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 ② 운율과 심상, 함축성이 드러난다.
- ③ 인물의 심리와 갈등이 잘 표현된다.
- ④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주제로 한다.
- ⑤ 서술, 묘사, 대화에 의해 전개되는 산문문학이다.

16. (다)~(라)의 내용을 참조할 때 글쓴이가 고전을 열심히 읽었던 이유가 아닌 것은?(3점)

- ①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기 때문에
- ② 소설가로서의 꿈을 이루려는 생각 때문에
- ③ 조상이 쓴 책이라 뿌듯함을 느꼈기 때문에
- ④ 정신세계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⑤ 문장이 단단하고 품위 있으며 아름다웠기 때문에

<끝>

※ 선택형 16문항, 서술형 8문항입니다. OMR카드 마킹 여부와 서술형 답안 작성을 꼭 확인하세요.

중간고사 지필평가(점수) (문항 당 배점: 각 문항에 표기)		합 계 (점수)
선택형(16문항)	서술형(8문항)	
50	50	100

< 객관식 정답 >

문항	정답	문항	정답
1	2	11	3, 5
2	4	12	4
3	3	13	5
4	4	14	5
5	5	15	1, 4
6	2	16	2
7	1		
8	3, 4		
9	1		
10	5		

< 서술형 답안 다음 페이지에 >

〈 서술형 답안 〉

문항 번호	정답	배점	채점기준/유사답	배점	비고
서1	(1)나 (2)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흰둥이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3)슬프다. 안타깝다	6	(1)나(어린이)		
서2	(1)한없이 봄길을 걷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걷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2)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남을 위해 희생과 봉사하는 모습이다.	6	(1)정답의 네 문장 중 하나만 써도 정답으로 인정 (2)희생, 봉사와 유사한 의미 의 다른 단어로 대체해도 정 답으로 인정		
서3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를 정성스 럽게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가정의 화목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7			
서4	(1)연탄재 (2)자기희생적 존재이다.	7	(2)자신을 희생하여 봉사하는 존재이다.		
서5	(1)(송준기 때문에)송혜교의 마음이 흔들렸다. (2)송혜교가 (송준기 때문에) 웃는다.	6	(1),(2)(송준기 때문에)생략해도 정답으로 인정 (1)송혜교의 마음이 흔들어졌 다.		
서6	준현이는 할머니께서 동생이 잘 있냐고 물어보 시는 것에 대답을 회피했다.	5			
서7	(1)㉠못, ㉡못해서, ㉢좋지 않았다. ㉣안 (2) ‘안’ 에 의한 부정은 의지로 인한 부정이나 ‘못’ 에 의한 부정은 능력부족이나 그밖의 이유에 따른 부정이다.	7			
서8	(1)외적갈등 (2)나의 사과를 에밀이 받아주지 않는다.	6	(1)(개인과 개인간의)외적갈등 (2)내가 에밀에게 용서를 구 하나 에밀은 나를 경멸하며 용서해주지 않는다.		